

[바둑]

‘괴동’ 목진석 거침없는 질주



음반발표 등 의도 접고 반상 복귀 이창호·이세돌 등 연이어 격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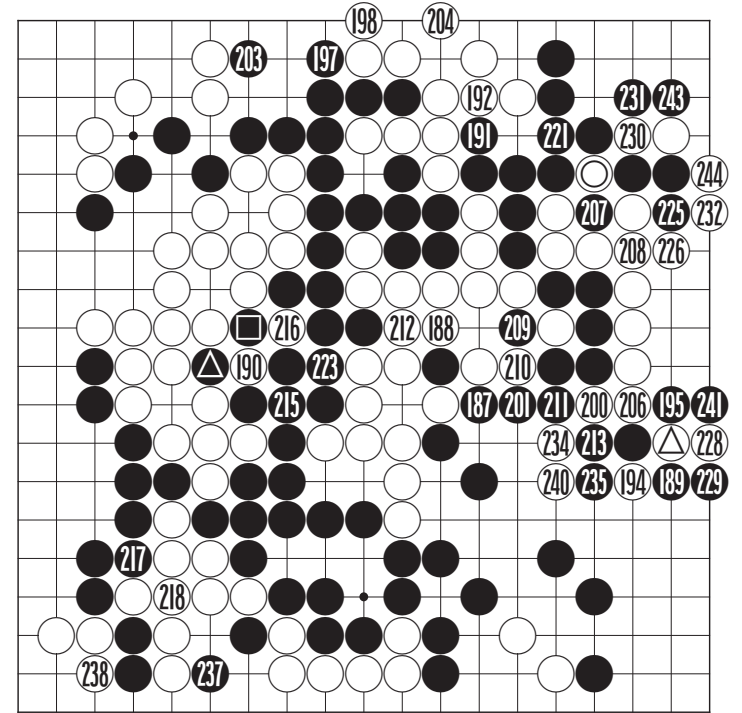
‘괴동’ 목진석 9단의 상승세가 무섭다. 14세 때 태극마크를 단 뒤 대륙의 강자 네웨이링을 꺾으며 ‘괴동(怪童)’이란 별명을 얻었던 목진석 9단은 9일 현재 35승5패의 빼어난 성적으로 바둑계에 자신이 존재를 각인하고 있다. 5패 가운데 3패가 모두 ‘한집 반패’일 정도로 양질의 대국이었다. 3월에는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백호부 결승에서 양건 7단의 대마를 왕중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목진석 9단이 일군 35승 가운데는 강호들의 눈물이 배어있다. 지난 3월 27일 국내 최대 거인전 강원랜드배 명인전 본선에서는 이창호가 무릎을 꿇었다. 목 9단이 이창호를 꺾었다는 것은 1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04년 LG배 세계기

왕전 결승에서 패배하며 이창호 9단에게 6연패를 당한 지 3년 만에 승점을 올린 것이다. 이창호는 그의 바둑인생에서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안겨준 장본인이다. 지난 2000년 KBS바둑왕전에서 무적 이창호 9단을 2대 1로 꺾고 우승하며 스타로 떠올랐으나, 2002년 기성전과 2004년 LG배 세계기왕전 결승에서 9단에게 연속 패배한 뒤 타이틀 무대에서 모습을 감췄던 이창호의 기적이 있다. 이후 목 9단은 중국어와 영어에 몰두하고 이성과제에 음반도 내는 등 의도로 한동안 바둑계를 떠나다시피했다. 또 지난 8일 열린 명인전 대국에서는 요즘 날고 깡다는 이세돌도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2연승을 헌납했다. 백을 잡은 목진석 9단은 이세돌 9단이 초반부터 ‘불주먹’을 휘두르며 주도권을 잡으려하

자 독심으로 맞불작전을 펼쳤다. 목진석 9단은 상변싸움에서 한 차례 이득을 본 후 하변과 중앙, 좌변으로 빙 돌아가는 전투에서 싸울 때마다 포인트를 얻어내 ‘세계최고의 싸움꾼’ 이세돌 9단으로부터 2024만에 항사를 받았다. 지난 2월에 열린 제26기 KBS바둑왕전에서는 박영훈 9단이 목 9단 일격을 받고 낙마했다. 박영훈 9단은 목 9단과의 역대전적에서 8승 1패로 절대강자였다. 제2의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는 목 9단에게 228수 만에 흑 불계패, 대회에서 탈락하는 비운의 주인공이었다. 목 9단의 이같은 상승세는 기복없이 이어지고 있다. 목 9단은 27승3패, 승률 90%로 전체 기사 중 다승과 승률 모두 1위로 지난 3월을 마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4기 KTwin 왕위전 16강 모든 패를 굴복시킨 불임수 9보(187~244)

白 윤찬희 9단 黑 목진석 9단



백 ㉞가 또 좋은 수였다. 이 수로 인해 팻감이 부지기수로 늘어나 윤찬희가 모든 패를 이기는 원동력이 된다. 목진석으로서의 불운이 된 한수인 셈이다. 윤찬희는 백 190으로 따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상대가 흑 223으로 굴복할 때까지 끈질기게 패를 물고 늘어지며 괴롭혔다. 목진석도 기세상 패는 계속해보고 있지만 이미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패를 하는 도중에 백 198로 상변에 내려선 수는 묘수이며 203도 좋은 수다. 하수들이 대개 패를 괴롭혀 생각해서 쉽게 양보해 버리는 것도 팻감이거나 하고 팻감을 적게 내주려고 단숨에 받다가 크게 수를 내주고 하기 때문이다. 패라는 변수가 판세를 요동치게 하는 요술쟁이인 것이다. 윤찬희는 기본종계 중앙 패를 이기고 나서 이번에는 다시 우상귀를 224로 끊어 결정타를 날렸다. 이 패 역시 목진석이 안자려고 안간힘을 다해보지만 백 ㉞로 붙여둔 수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패는 흑도 패를 지면 대마가 잡히므로 부담이 큰 패다. 여기서도 결국 흑 243으로 몰아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백이 244로 따내 우변 백 대마를 살리는 순간 승부가 결정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좌변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만 승부는 무관하므로 총보를 보기 바란다. 193,199,205-㉞, 196,202,214-190,219-㉞, 220-㉞, 222-216.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FA 한국마사회

세계 최고층 빌딩서 ‘최고수’ 가리자

중환배, 8월 대만서 16강전

대만이 개최하는 중환배 세계바둑대회 가 오는 8월 세계 최고층 빌딩인 대만 타이베이 ‘타이베이 101’에서 개최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중환배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기사들이 출전해 16강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리는 국제기전.

이번 대회에 국가 시드 4명을 배정 받은 한국은 지난 해 우승, 준우승자인 최철한 9단과 이세돌 9단을 포함

해 총 6명이 출전하게 된다. 대회장으로 쓰이게 될 ‘타이베이 101’ 빌딩은 높이 508m, 101층의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초대형 빌딩으로 2003년에 완공했으며 2005년 전대대기 일 년에 완공됐다.

지난 2005년 제2회 중환배가 열린 당시 타이베이 101 관계자들이 대회 주최측에 제3회 대회를 위해 빌딩을 무료 대국장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의를 해왔고 이후 협의를 거쳐 최근 대국장으로 확정됐다.

제2기 부안 여류기성전

일시 : 2007년 5월 8일 주최 : 부안군 주관 : (재)한국기원



‘반상 女帝’ 부분 꿈 안고 제2기 부안 여류기성전 개막식이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흥익동 한국기원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기사들이 예선대국을 갖고 있다. 이번 대회 우승상금은 1천만원. 8강전부터 결승까지 대국은 11월 부안에서 치러진다. <사이버오로 제공>

‘이창호 9단의 21세기 바둑특강 시리즈’ 출간돼

‘이창호 9단의 21세기 바둑특강 시리즈’(다산출판사)가 출간됐다. ‘이창호 9단...’은 이창호 9단의 바둑책 보급 10년을 결산하는 혁신판 바둑 시리즈다.



모두 10권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포석 10배 쉽게 배우기’, ‘정석 10배 쉽게 배우기’, ‘행마 10배 쉽게 배우기’ 등 6권과 ‘도전! 초중급 사할’, ‘도전! 묘수풀이’, ‘도전! 초중급 맥’ 등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창호 9단은 “이번 바둑시리즈는 지금까지 출간된 책의 내용을 총정리하고 새롭게 정립된 이론과 유형을 집약한 21세기형 바둑시리즈다”고 밝혔다. 각 권 가격은 9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

‘초단킬러’ 윤준상, 이창호만 남았다



‘반상 女帝’ 부분 꿈 안고

제2기 부안 여류기성전 개막식이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흥익동 한국기원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기사들이 예선대국을 갖고 있다. 이번 대회 우승상금은 1천만원. 8강전부터 결승까지 대국은 11월 부안에서 치러진다. <사이버오로 제공>

한상훈 꺾고 왕위전 도전권 획득

윤준상 6단이 다시 한번 패권을 놓고 이창호와 격돌한다. 윤 6단이 지난 9일 한국기원 본선 대국실에서 열린 왕위전 도전자 결정전에서 초단돌풍의 주역 한상훈 초단을 150수 끝에 백 불계로 누르고 왕위 도전권을 획득했다. 윤준상 6단은 왕위전 8강에서 윤찬희 초단을 꺾은 데 이어 한상훈 초단까지 제압하며 ‘초단킬러’로 떠올랐다.

이창호 9단을 쓰러뜨리고 국수 타이틀을 거머쥔 윤준상 6단은 오는 25일 중국 사천성에서 이창호 9단과 도전 5번기 승부를 벌이게 됐다. 왕위전 12연패를 노리는 이창호 9단은 윤준상에게 타이틀을 빼앗길 경우 무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왕위전은 각 2시간 1분 초읽기 5회이며 우승상금은 4천800만원(준우승 2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6일 광주 서구청장배 생활체육바둑대회

제4회 광주서구청장배 생활체육바둑대회 가 오는 26일 서구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바둑연합회원과 광주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아마 5단 이상 유단자들이 참가하는 최강부와 아마 3단 이상 유단자들이 출전하는 강자부 등으로 나뉘어 열린다. 고급부는 일반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여성부는 광주시바둑연합회원과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참가비는 일반 1만원, 학생·어린이부는 5천원이다. 참가를 원할 경우 광주시바둑연합회 홈페이지(gjbaduk.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13-500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han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ngha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Eplus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yundai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Beomwon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